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8. 24.(일) 12:00
(지 면) 2025. 8. 25.(월) 조간

대한민국 재난안전기업, 베트남 시장 진출 본격화

-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 내 통합한국관 운영 성황리에 마무리
- 25개 유망 재난안전기업 참여, 약 270억 원 규모의 계약 추진 등 가시적 성과 창출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‘2025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(Secutech Vietnam 2025)*’에서 운영한 통합한국관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
* (기간) '25.8.14.~16. / (장소)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컨벤션센터
- ‘베트남 씨큐텍 박람회’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재난안전산업 전시회로, 올해는 베트남 총리를 비롯한 베트남 정부·공공기관 관계자, 기업인, 바이어 등 약 1만 7천여 명이 방문했다.
- 이번 통합한국관은 국내 25개 유망 재난안전기업이 참여해 소방, 방재,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.
- 박람회 기간 동안 현지 바이어 등과 총 447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 결과, 약 270억 원에 달하는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었다.
 - 특히, (주)진우SMC(특수 소방차 제조업체)는 베트남 국영기업인 Thanglong Company와 무인 파괴 화재 진압 방수차(5대) 등 약 85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.
 - 현지 기업과 제품 구매 등에 관한 MOU도 7건을 체결하며 우리나라 재난안전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.
 - 파이어버스터Lab(소방 설비 제조업체)은 베트남 설계·시공업체 등 4개사와 고출력·고압 스프링클러 시스템 활용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.

- 행정안전부는 국내 유망 재난안전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과 기술 협력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일본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 산업전시회인 ‘2025 도쿄 위기관리산업전(Riscon Tokyo 2025)’에도 통합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이다.
-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“이번 통합한국관 운영을 계기로 국내 재난 안전기업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”라며,
- “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용두 (044-205-4180)
		담당자	사무관	심유리 (044-205-4188)



□ **박람회 개요**

- (전시회명) 베트남 씨큐텍 박람회 2025 (Secutech Vietnam 2025)
 - 올해 18회차를 맞이하는 보안·안전·IOT 기술을 다루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박람회
 - ※ 베트남 총리, 공안부, 상공회의소, 소방 및 구조 협회 등 17,000여 명 참관
- (기간/장소) '25. 8. 14. (목) ~ 8.16. (토) / 호치민 사이공 컨벤션 센터
- (전시 분야) 상업용 보안, 화재·안전, 스마트 빌딩, 주차 기술 솔루션

□ **통합한국관 추진 개요**

- (운영 기간) 8.14. (목) ~ 8.16. (토)
- (규모/위치) 135 m²(25개사, 30부스) / A홀
- (부스 구성) 제품·기술 전시관, 상담장, 대한민국 재난안전산업 홍보관 등
- (기업 지원) 박람회 부스 임차(기업별 9m²)·장치비, 물류 운송비(왕복), 통역비, 바이어·투자자 초청 비용 등

【 2025 씨큐텍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 운영(8.14.~16.) 】

